

<b>품명</b>	그 밖의 구리합금 [제7405호의 모합금(master alloy)은 제외한다]		
<b>HS code</b>	7403.29		
<b>상대국 수입관세율 (%)</b>	MFN(*24)	FTA	RCEP
	1	0	0



▶ 해당 품목에 대한 對중 수출증감률은 18년부터 23년까지(20년 제외)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, 19년도와 유사하게 23년 12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수출증감률이 354.5%로 대폭 상승함

**한국의 연도별 對중 수출동향(HS code 7403.29)**

(단위 : 천불, %)

연도	수출금액	수출증감률
2018	1,955	7,338.00
2019	40,000	1,945.50
2020	1,654	-95.9
2021	4,952	199.4
2022	8,836	73.4
2022.12	8,836	78.4
2023.12	40,162	354.5

▶ 중국은 세계 최대 구리 소비국이며, 중국의 해당 품목에 대한 對한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동 품목을 선정함

▶ 구리합금의 對중 수출금액은 “그 밖의 구리합금[제7405호의 모합금(master alloy)은 제외한다](HS 7403.29-1010, 1020, 9000)”과 “구리-아연의 합금(황동)(HS 7403.21-0000)”은 증가하고 있지만 “구리-주석의 합금(청동)(HS 7403.22-0000)”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

**한국의 연도별 對중 수출동향(HS code 7403 세부품목)**

(단위 : 천불, %)

순번	HSK	품목명	수출금액		
			2021	2022	2023
		총계	135,838	118,027	154,016
1	7403210000	구리-아연의 합금(황동)	114,555	92,558	105,039
2	7403220000	구리-주석의 합금(청동)	16,331	16,634	8,815
3	7403291010	구리-니켈의 합금(백동)	0	0	0
4	7403291020	구리-니켈-아연의 합금(양백)	166	170	180
5	7403299000	기타	4,786	8,665	39,982

▶ HS 7403.29(그 밖의 구리합금) 對중 수출 금액 및 FTA 활용률은 전년대비 증가함

- FTA 활용률 21년 84.9%, 22년 26.8%, 23년 53.5%로 나타남
- 해당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(PSR)은 CC or RVC 40%임

▶ 23년 기준, HS 7403.29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중소기업 100%임

- FTA 활용률은 중소기업 53.5% 임

**수출금액  
및 FTA  
활용현황  
(HS 6)**

<p><b>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(HS 6)</b></p>	<p><b>HS 7403.29의 對중 수출금액 및 FTA활용률 (2021~2023)</b></p> <p>(단위 : 천불) (단위 : %)</p> <p>2021 2022 2023</p> <p>■ 총 수출금액 ● FTA 활용률</p>	<p><b>HS 7403.29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(2023 기준)</b></p> <p>23년 수출금액 비중</p> <p>중소기업 100%</p> <p>&lt; FTA 활용률 &gt; 중소기업 : 53.5%</p>
<p><b>중국 수입 동향</b></p>	<p>▶ 23년 기준 중국의 선정품목 주요 수입국은 말레이시아, 태국, 베트남, 파키스탄, 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남</p> <p>- 10대 수입국 동향을 살펴보면 말레이시아(59.8%)에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, 태국(18.3%), 베트남(4.1%), 파키스탄(3.3%), 한국(3.2%) 등의 국가 순으로 수입하고 있음</p> <p>* 23년 기준 우리나라는 5위 수입국임</p>	
<p><b>특이 사항</b></p>	<p>▶ 구리합금 제품은 전기, 전자, 기계, 건설, 해양, 항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됨</p> <p>- 특히, 전기차 제작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도 이용되어 미래형 소재로 각광 받으면서 구리합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</p> <p>▶ 중국은 23년부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철금속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표준화 작업을 추진 중임</p> <p>- 제조업 강국인 중국이 비철금속 업종을 정보기술과 융합하여 육성하고자 하며, 앞으로의 비철금속 업종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</p>	
<p><b>시사점</b></p>	<p>▶ 선정품목의 한-중 FTA, RCEP 특혜관세율 0%, MFN은 1%로 한-중 FTA 특혜관세율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</p> <p>- 특혜관세 활용 혜택이 1% 있는 품목임</p> <p>▶ 선정품목은 여러 산업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임</p> <p>- 다만, 중국의 비철금속 부분의 탄소저감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비철금속 산업의 구조조정 및 생산량 통제로 인한 수출 및 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</p>	